

Series: Good Plans
Message Title: "Prosperity"
Speaker: Steve Mitchell
November 3rd, 2024

1971년, 존 레논은 "Imagine"이라는 노래를 썼습니다.

이 노래는 기독교 노래가 아닙니다. 사실, 첫 번째 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노력하면 쉬워요

하지만 그는 이어서 이렇게 씁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갈망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듯이, 샬롬이죠. ...그가 인간 폭력의 재앙이 끝나기를 바라며. ...그가 우리 모두가 이 좋은 세상을 조화롭고 온전하게 나누기를 바라며. 각 개인이 번영하지만, 결코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서만 아닙니다.

이 노래는 기독교 노래가 아니지만, 회복과 재난으로부터의 구원을 향한 성경적 갈망을 반영합니다.

레논은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당신은 내가 꿈꾸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나는...혼자가 아닙니다

————— 그는 맞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희망과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백성을 위한 좋은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시리즈의 이름은 "좋은 계획"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서 29장에 있는 풍부한 구절을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의 편지의 한 부분을 시작해 봅시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선을 위한 계획이지 악을 위한 계획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다. — 예레미야 29:11 TLB

이 풍부한 구절을 깊이 파고들기 전에, 우리는 맥락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유배된 동포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거기에 있었나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원전 587년,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2세의 군대에 의해 무너진 후 강제로 바벨론으로 이주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는 유다인의 대규모 해외 거주 커뮤니티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그들이 심지어 도시로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강가에 살며, 노숙자이며,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합니다.
그들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화: 제가 광고업에 종사할 때, 저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의 특징과 장점이 중요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열쇠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정을 판매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판매 전략 중 하나는 두려움, 불확실성, 그리고 걱정에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머리카락과 피부가 완벽하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 옷을 입으면 멋져 보일 것입니다.”
노화에 대한 두려움, 외모를 잃는 것,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메시지는 긍정적인 **spin**을 가진 뒷문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때때로 의사소통은 더 직접적입니다:
“저를 뽑지 않으면 당신의 인생은 끝장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미디어가 오래된 방송 TV든 TikTok이든 상관없이, 이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고 있던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두려움, 불확실성, 그리고 걱정을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는 금방 우리의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거짓 희망.
거짓 미래.

이것이 예레미야가 이 유배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을 격려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몇 가지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힘든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정착해, 너희는 여기서 한동안 있을 거야, 몇 대에 걸쳐.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으셨다. 사실, 그분은 항상 너희를 생각하시고, 그분의 생각 — 너희를
위해 상상하는 것, 그분의 계획 — 은 좋고, 정말 좋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멀리 계시지 않다. 사실, 그분은 가까이 계시고, 너희가 그분을 찾기를
원하신다.
그 다른 사람들,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그래, 그들은 틀렸다.”

이것이 예레미야 29장의 매우 간단한 30,000피트 요약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요점,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NIV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안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너를 번영하게 하고 해치지 않기 위한 계획, 너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계획이다.” — 예레미야 29:11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가장 덜 이해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집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나는 안다...
나는 가지고 있다...”

이것은 강조된 진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중요한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비록 상황이 그럴지 않아 보이더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생각과 의도는 우리의 선을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 우리를 위한 좋은 계획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들로부터 면제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에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유배자입니다. 그들은 난민입니다. 그들은 노숙자입니다.

몇 년 전, 저는 포틀랜드 NW에 있는 스타벅스를 나서고 있었습니다. 아침 커피 미팅을 마친 후였죠.

그때 거리에서 살고 있는 젊은 남자를 보았습니다.

이런 행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다음 약속에 가기 위해 급히 지나쳤습니다.

그와 상호작용하지 않고 그를 지나쳤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에게 아침을 사라.”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나쁜 경험이 있었습니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를 스타벅스에서 아침을 함께하자고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헤로인 중독에 빠졌던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재활을 갖 마쳤지만, 집이 없었습니다.
그는 밖에서 사는 것에 대해 불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타가 있었다면 — 그걸 마약 사는데 팔았다고 했죠 —
거리에 나가서 **decent money**를 벌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왜 제가 그를 도왔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답했습니다.

“하나님!” 그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나를 싫어해.”

저는 그가 왜 그렇게 믿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인생 내내 개미처럼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이가 확대경을 들고
햇빛으로 그를 태우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하나님이 그가 배고프다는 것을 아시고 그를 먹이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기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 딸이 처음 배운 기타였고 이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연주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 기타를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확 밝아졌고 “물론이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기타를 가져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스타벅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기타를 들고 돌아갔을 때, 그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린 후 NW 지역을 차로 돌며 그를 찾았지만,
결국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압니다.
그 순간, 그 남자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더 나은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나은 계획이 있었고, 좋은 계획이 있었으며, 그것은 그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좋은 계획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위안이 됩니다.
그 계획에는 희망적인 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 목사님이 몇 달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미래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분은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곳에 대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무엇일까요?

“...너를 번영하게 하고 해치지 않기 위한 계획,
너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계획이다.”

여기서 “번영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shalom”에서 번역되었습니다.
이 구절의 그 부분은 이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너를 ‘shalom’하게 하려는 계획...”

shalom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언약의 근본 원리입니다.
완전함, 전체성, 조화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주 “평화가 너와 함께하길”이라고 인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하나님은 그분과의 관계에서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평화”라고 설명하십니다.
바울도 로마서 5:1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shalom)을 누립니다...”

바벨론의 유배자들은 이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상실의 아픔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개미처럼 느꼈고, 하나님은 확대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한 좋은 계획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의 그들의 귀환을 상상하셨습니다.
그분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두 번째 성전이 모든 영광 속에 재건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수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보일 수 있는 하얀 석회암과 금빛으로 빛나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 — 육신이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 가 언젠가 그 성전을 대체할 것을 아셨습니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을 보내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영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좋은 계획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조심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 두 가지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구절을 과하게 개인화하거나,
또는 과소 개인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심의 메시지를 읽고 그것을 우리의 야망에 맞추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번영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개인화된 기대를 세우고,

그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때 그 무게에 눌려서 부서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에 대한 이 위안은 치트 코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훨씬 더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땅에서 하늘처럼”입니다.

하나님이 유배자들에게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 계획에는 예수님과 그분의 세상에 대한 구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의 지평선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하면,

...현재 순간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29:11을 적절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소 개인화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걱정하나요?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오직”이 아니라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것은

...다른 일들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배자들에게 주신 지침을 들어보세요:

“집을 짓고 정착하라; 정원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아 아들에게 아내를 주고 딸을 시집보내라. 그곳에서 수를 늘려라; 줄어들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유배 보낸 성읍의 평화와 번영을 구하라. 그 성읍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라. 그곳이 번영하면 너희도 번영할 것이다.” — 예레미야 29:5-7

짓고. 심고. 먹고. 결혼하고. 번식하고. 번성하라. 기도하라.
살롬의 근원이 되라.

이들은 단기 목표입니다.
개인적이며,
가정과 이웃에서 이루어집니다.
유배자들의 적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유배자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각 이웃, 각 가정, 각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과도하게 개인화하는 것과
과소 개인화하는 것 사이에는
신뢰와 긴장이 공존하는 달콤한 지점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당신이 먹을 수 있지만,
다음 날은 당신이 제안받은 기타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두고 구속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와 치유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B4**의 청소년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혼자 남겨집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기타를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보세요, 신뢰는 그 긴장 속에 존재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최종 구속을 기다리는 세상에서.
저는 기독교인이 되는 다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실질적인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당신의 야망을 느슨하게 잡으세요.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거룩한 상상력을 키우세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이야기에 꼭 젖어드세요.
그 이야기들을 읽고, 듣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세요.
성령님께 당신의 상상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맞춰 재조정해달라고 초대하세요.
결코 적이 당신의 미래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고 말하도록 두지 마세요.
그는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짐을 지세요. (갈라디아서 6:2)
때때로 누군가가 기도하고 믿을 수 없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믿어야 합니다.
때때로 당신이 그들의 긴장 속에서 신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그분의 좋은 계획에 굴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우리 팀이 응답의 노래를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인도하실 때 이를 받아들이세요.
무릎을 꿇고 싶다면 꿇으세요.
손을 들어 서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조용히 앉아 생각하거나 기도하고 싶다면, 괜찮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위해 다시 올라오겠습니다.